

■ 한라일보-초록우산 공동기획 / '어린이를 도울 때 진정한 어른이 됩니다'

“봉사는 함께 할수록 꾸준히 이어져”

신제주로타리클럽 아동센터 지원사업 활발 4년 연속 '최우수 클럽상'

1981년 창립한 신제주로타리클럽(신제주RC)은 지난 38년간 한결같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 한라일보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공동기획한 '어린이를 도울 때 진정한 어른이 됩니다' 캠페인 9호 인터넷 대상인 신제주RC를 소개한다.

창립당시 26명의 회원으로 출발한 신제주RC는 현재 126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제주의 대표 클럽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어린이를 돕는 일에 있어서는 어느 클럽에 뒤지지 않는 활동을 하고 있다.

올해 클럽 40대 회장에 취임한 장행우 회장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현재 12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신제주RC는 아동센터 지원사업에 큰 힘을 쏟고 있다. 신제주RC는 4년연속 종합최우수클럽상을 수상했다. 사진=초록우산 제공

제주위원회 활동을 병행하며, 지역 내 소외아동을 돕기 위한 후원자를 발굴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장 회장은 “평소 아동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회원들이라 보니, 어린이를 돕는데 주저함이 없다”며 “많은 회원들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 소외아동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

어린이를 향한 관심은 클럽의 다

양한 활동에서도 묻어났다.

지난 7월 취임 당시 받은 축하금을 모아 어린이재단에 500만원을 기부한데 이어, 지난 10월에는 고산지역 아동센터 시설이 노후됐다는 소식을 듣고 예산 1300만원을 마련해 센터 개·보수 공사를 진행했다.

신제주RC의 지원을 통해 변화된 환경에서 지내게 된 아이들은 감사

의 마음을 담아 신제주RC에 여러장의 편지를 보내왔다. 아동 장학금 지원사업과 어린이재단에 차량을 기증한 것도 빼놓을 수 없다. 12월 초에는 소외아동을 위해 김장김치 300포기를 담가 전달했다.

4년 연속 종합최우수클럽상을 수상하게 된 결실도 봉사는 함께 한다는 신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올해 창립한 제주한빛RC를 포함해 그동안 창립한 로타리클럽이 8개에 이르고 있다.

장 회장은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듯이, 봉사도 함께 했을 때 꾸준히 계속 될 수 있다”며 “회원 및 자매클럽과 어린이를 돕는 일을 멈추지 않고 오래도록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 후원문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 (064-753-3703)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발로 댄 제주체납관리단 '성과'

올해 체납액 51억원 징수 고액체납 가택수색 봉사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제주체납관리단을 운영한 결과 3만2547건 51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날 도청 2층 자유실에서 2019년 제주체납관리단 운영 평가회를 열고 지난 3월 출범 후 약 10개월 동안의 체납관리단 운영실적 및 체납액 정리실적 보고를 비롯 행정시 별 우수사례와 문제점 및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2020년 운영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고액체납자 관리단은 4회에 걸친 가택수색으로 명품가방·고급 이륜차 등 동산을 압류했다. 담당자별 책임 징수제를 운영해 1056명의 체납자에 대한 관리분석 및 현장 징수 독려활동 결과 2702건 24억 원을 징수했다.

소액체납자 관리단은 10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전화 상담 독려, 체납차량 번호판 영

지 등의 활동으로 총 2만9845건 27억 원을 징수했다.

특히 소액체납자 관리단의 현장 실태 조사 중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 6명에 대해서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로 통해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생계가 어려운 홀로 사는 어르신은 읍·면·동 맞춤형 복지 사례관리팀 방문상담을 통해 독거노인지원센터 서비스(1주일 2-3일 정도 전화 또는 방문)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와 함께 5년 이상 장기 압류된 재산의 싹쓸이 분석 후 부동산 41필지·차량 30대는 공매의뢰했고, 예금 및 매출채권 등 2945건 추심을 통한 압류재산 일제정리로 납세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제주도는 소개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외 출입이 잦고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는 지방체 체납자 9명(체납액 총 11억원)에 대해서도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조상윤기자

초등영어 보완교재 보급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초등영어 보완교재 '영어야 한디늘게 4학년'을 개발해 도내 각 초등학교에 보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보급된 교재는 제주의 환경과 문화를 반영해 초등학교 영어듣기·말하기 음성 언어에 중점을 뒀다. 지역적 특성을 담은 영어 교과서는 전국에서도 첫 사례다.

앞서 도교육청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2018년 11월부터 초등영어 보완교재를 개발해 왔다. 이달 완성된 교재는 내년 3월부터 도내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지은기자

'운창호법' 시행 1년, 제주는 ...

음주운전 여전... 하루 4건 이상 적발

최근 1년간 1636건 적발 경찰 "연말맞아 증가세"

일명 '운창호법' 시행 1년째인 18일 제주지역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절반 가까이 줄었으나, 하반기부터 음주운전이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운창호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제주지역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총 1636건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동기간 단속된 음주

운전이 3062건임을 감안할때 1년새 46.6% 줄었다.

운창호법 시행으로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면서 전체적인 단속 건수는 줄었으나, 제주지역 하반기 단속 건수는 다시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와 올해 동기간 하반기 음주운전 단속 건수를 살펴보면 지난해(7월~12월 17일) 1155건, 올해(7월~현재) 920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1865건, 올해 상반기 661건으로 큰 차이가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특히 18일 새벽 5시쯤 서귀포시 서흥동 서흥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30대 운전자 A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잠이 들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0%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운창호법 시행 이후 전체적인 음주운전 단속 적발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계속해서 음주운전자들이 적발되고 있다”며 “각종 행사와 술자리가 많아지는 연말과 새해를 맞아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해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제주도자치경찰단은 교통환경이 취약한 도내 5개 초등학교 앞에 노란신호등을 가동했다.

초등학교 앞 '노란신호등' 첫 가동

교통 환경 취약 5곳 대상 자치경찰 "확대설치 계획"

제주지역에도 초등학교 앞에 노란신호등이 처음 등장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안전한 등하굣길' 구축사업 일환으로 초등학교 중 교통 환경이 취약한 5개교에 제주에서 최초로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신호기를 노란신호등으로 교체했다고 18일 밝혔다.

노란신호등이 처음 설치된 학교는 함덕초를 포함해 남광초, 덕력초, 아라초, 서귀북초등학교다.

이번에 설치된 '노란신호등'은 검은색으로 돼 있는 기존의 신호등 외관을 먼 거리에서도 알아보기 쉬운 노란색으로 교체한 것이다. 노란신호등 설치로 교통 환경이 취약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전자의 시인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차량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임을 미리 인지해 서행하고 신호위반 예방도 유도하게 된다고 자치경찰단은 설명했다.

자치경찰단은 향후 노란신호등 설치 운영 효과 분석을 통해 개선점을 마련하고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서귀포시 방과후학교 '우수상'

서귀포시가 18일 지역의 초·중·고를 대상으로 지원해온 방과후학교가 지방자치단체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시는 이날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열린 '2019년 제11회 방과후학교대상' 시상식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서귀포시의 지원 의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지역사회의 파급효과 등을 인정받아 지자체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시는 2010년 창조도시팀을 만들어 '명품교육도시 육성' 기반을 조성했고, 2011년 설립된 재단법인 교육발

전기금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어 2012년 창조도시팀 조직을 확대한 평생교육지원과 신설, 2016년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개관 등을 통해 초·중·고생에 대한 방과후 교육특화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추진하고 자기주도학습 지원 업무에 공들여 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Better Choice, Better Life

제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

2020학년도 정시 신입생 모집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후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만 30세 이상이라면 4년제 정규대학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생학습의 꿈, 믿을 수 있는 제주대학교에서 시작하세요!

건강부티향장학과

관광융복합학과

부동산관리학과

실버케어복지학과

수능을 보지 않고 서류전형만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 수능을 어떻게 준비하지?” 걱정마세요. 미래융합대학은 수능 없이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기록부만으로 대학 진학이 가능합니다.

제주지역의 특성을 살린 학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주지역의 자연과 사회적, 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학과 설립과 4차 산업 사회에 발맞춘 커리큘럼으로 미래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혜택과 야간 및 주말강의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합니다.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학생들을 위해 일반 학생 장학금 대비 1% 확대 지원과 온라인 수강(e-Learning) 및 야간·주말강의로 학습의 기회를 더 넓혔습니다.

재직 분야의 전문성을 높여 커리어를 쌓을 수 있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미래융합대학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기에도 용이하지만 재직자들이 심화학습을 통해 자신의 분야에서 커리어를 쌓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 2019. 12. 26(목) 09:00~12. 31(화) 18:00

접수방법 **온라인** 제주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ibsi.jejunu.ac.kr>) (주)유웨이어플라이(<http://www.uwayapply.com>)

방문 접수 제주대학교 입학관리과(본관 1층)

제주대학교
JEJU NATIONAL UNIVERSITY